

## 2013년 7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3.7.25(목) 15:00~17:00

### 위원 주요 발언 내용

#### ▲ 큰 사건사고 보도 시 빠른 보도시스템 구축 필요

- 아시아나 항공사고와 같은 사건사고 발생 시 중요한 점은 빠른 보도시스템 구축임. 뉴스Y 보도만 보서는 전반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 현장의 상황과 앞으로의 진행 방향 등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돼 타채널로 돌리게 되었음. 뉴스Y의 능력을 발휘해 역동적으로 보도했다라면 하는 아쉬움(김경모 위원)
- 긴급한 사건 사고 발생 시 뉴스Y는 긴급출동취재 시스템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 있음(최종준 위원)
- 아시아나 추락사고 관련 국토해양부 긴급브리핑 때 뉴스Y는 광고 중이었음. 중대한 사건사고 브리핑 때에는 바로 연결돼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최종준 위원)
- 해병대 체험 사건사고 보도 시 보도전문채널의 특성상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본질파악, 재발 방지책 등의 메시지를 시청자들에게 빠르게 전달해야 함(최종준 위원)
- 아시아나 추락사건 보도 시 우왕좌왕 한 느낌이 들었으며 실제로 엄청난 양의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을 반복한 보도였음(박영상 위원장)
- 사고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나 체크리스트 등 진행되는 내용이 점차적으로 쌓여 완성도가 높아지면 좋겠으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하지 않았음(박영상 위원장)
- 중대한 사건 발생 시 단일취재시스템을 갖춰 빠르게 심층적인 보도를 할 수 있다면 좋을 것(박영상 위원장)
- 속보성에 중심 둔 연합뉴스 보도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살리지 못해. 과거 KBS 9시 뉴스식의 데스크-->기자 연결의 패턴을 평면적으로 연결해 다른 뉴스와 차별화 되지 않음(홍승용 위원)

#### ▲ 보도 백서 및 매뉴얼 갖춰야

- 대형 사건사고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백서나 매뉴얼을 준비하고 사전에 교육된다면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한박무 위원)
- 인력, 장비, 행동요령 등 매뉴얼화가 돼 있으면 모든 상황마다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박영상 위원장)

- 매뉴얼을 시스템화하여 갖추고 운영 관리하는 조직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고 조직 운영에 비효율적일 경우도 있을 것(김경모 위원)

#### ▲ 외래어, 부적절한 표현 등 개선돼야

- 뉴스Y의 프로그램명을 굳이 영어로 표현해야 하는지 의문.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서라도 외래어 사용을 줄였으면 좋겠음(최종준 위원)
- 법률전문용어가 많이 사용돼 시청자로 하여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기소중지'는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고, '수사종결'은 수사가 끝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수사만 종결이고 검찰로 송치한다는 내용일 경우에는 '검찰송치'라고 표현해야 오해가 없을 것(최종준 위원)
- 7월 8일 아시아나 사건 보도에서 사고자 가족이라고 표현했는데 사고에 대한 피해자 가족이라고 표현해야. '체류비'를 '채류비'라고 표현했음. '체류비'라고 표현해야(김정연 위원)
- "다소 커~" 라는 표현은 어느 정도 큰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가늠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김정연 위원)
- 자막의 표현을 지나치게 함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아쉬워(김정연 위원)
- 자막 표기 시 숫자에 관해서는 일관성 있게 통일했으면. 아라비아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으며 한글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음(김정연 위원)
- 뉴스Y의 보도 내용 중 사고 피해자 가족에게 '실례'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서 아쉬웠음. 타사에서는 '심려'라는 표현을 사용했음. 국민들로 하여금 사실을 이해하는데 있어 뉴스Y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람(이석구 위원)
- 시청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나 외래어는 우리말로 이해가 쉽도록 표현해 줬으면 좋을 것(박영상 위원장)

#### ▲ 화면 구성 개선해야

- 화면의 메인색을 주황색으로 하다 보니 가독성이 떨어짐. 메인색을 변경하기 어렵다면 글자의 색을 변경하여 눈에 잘 띄게 했으면 함(최종준 위원)
- 스크롤 또한 분야별로 분류를 하지 않아 채널을 돌리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고 방식도 현재의 우에서 좌로 흐르는 방식보다 아래에서 위로 스크롤 되어 정지되는 형태가 가독성이 좋음(최종준 위원)
- 뉴스앵커의 보도 진행 시 대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하단 자막으로 굳이 질문 내용을 계속 내보내고 있을 필요는 없었을 것(김정연 위원)
- 화면 구성 시 자료화면 구성이 부족함. 스포츠분야 보도 시 예전 자료를 현장의 화면과 같이 구성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자료화면을 확보해 현장감 있게 구성하면 좋을 것(박영상 위원장)

#### ▲ 균형있고 심층적인 보도해야

- 국방외교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므로 빼고는 논할 수 없는데 국가안보를 둘러싼 정치 갈등만으로 보도가 돼 아쉬움. 외교문제에 대해서는 균형있고 충실한 내용으로 다루어져야(김경모 위원)
- 경전철에 대한 보도 내용에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경전철은 무엇이고 다른 전철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볼 수 없었던 점은 아쉬웠음. 상세한 설명은 시청자들에 대한 서비스임(한박무 위원)
- 국제뉴스에서 영국의 왕자출산소식을 전하면서 시민을 인터뷰한 내용은 영국의 반응과는 달리 인접해 있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별 관심없는 내용이며, 한국의 국민들도 영국왕자의 출산에 대해 별관심이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뉴스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아쉬워(이석구 위원)
- 한미 방위비 분담금 관련 보도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국익만 챙기려는 생각이 들었음. 방위비는 국민들에게 큰 관심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 방위비분담금과 전시작전권 관련 내용은 원인과 배경 등에 대해 전문가의 해설 기사를 함께 심층 보도할 수 있다면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해를 높일 수 있음(차경애 위원)
- 남북 간의 분위기도 있는데 요즘은 군사 관련 내용이 많은 것 같음. 병영체험도 좋지만 평화체험도 제시해보는 계기를 뉴스Y에서 마련해 보면 좋을 것(차경애 위원)
- 세인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하거나 그럴만한 주제를 다뤄야. 현재는 기존 방송 보도에서 하던 방식을 답습하여 짧은 사실 전달 기사가 중심(홍승용 위원)
- 연합뉴스의 취재기자를 활용, 방송프로그램이면서도 한 주제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다양한 시각을 제시할 필요. 동일 주제에 대해 연합뉴스 취재기자가 각 분야의 시각을 각 부문의 입장에서 전달(홍승용 위원)
- 기존 방송사의 기사가 짧은 정보 전달이 용이했던 정치, 사회 분야 주제에 장점을 가졌던 반면, 연합뉴스 방송은 심도 있는 전달이 필요한 경제 현안 등에 포커스를 두고 취재기자를 활용하여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노력 필요. 특정 보도 채널에서 이미 특화된 증권 등 부문 외의 신속하고 중요한 경제 프로그램을 설계했음(홍승용 위원)
- '신율의 정정당당' 이라는 정치 평론 프로그램은 있지만, 경제 분야의 평론 또는 심층 취재 방송을 연합뉴스 취재 기사를 통해 구축하는 것도 좋을 듯(홍승용 위원)

#### ▲ 긍정적인 평가 사례

- 아시아나 항공사고는 일요일 내내 관심을 끌었던 사건으로 뉴스Y 보도 내용이 전체적으로 무난했음.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잘 다뤄졌음(김경모 위원)
- 'NLL작전환수'는 연합뉴스 특종보도로 신속하게 다뤄졌고 전문가를 초청하는 등

- 타 매체보다 빠르게 보도해 상당히 높게 평가함(김경모 위원)
- 해병대 체험 사건사고 생중계 시 뉴스Y는 즉각적인 대처를 해 상당히 좋았음 (한박무 위원)
- '황금접시의 비밀'은 상당히 흥미로웠음. 뉴스Y는 보도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문화 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시청자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차경애 위원)
- 글로벌Y의 내용과 범위가 안정적으로 보도되고 있음(홍승용 위원)

#### ▲ 기자 및 앵커 관련

- 얼굴이 이미 많이 알려진 기자가 너무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노출되는 것은 자제해야(김정연 위원)
- 뉴스Y는 연합뉴스의 뉴스를 보도할 때 스타기자를 활용하는 것 보다 지방 쪽이라 할지라도 얼굴을 알릴 수 있도록 열의가 있는 기자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좋을 것(김정연 위원)
- 앵커의 시선이 시청자를 바라보지 않는 위치인 것 같음. 아래쪽을 바라보는 듯 해서 앵커의 시선을 조정해주어야 할 것(이석구 위원)
- 여름 무더위와 에너지 절감 사회분위기인데 남자 앵커들이 꼭 넥타이를 매고 방송해야하는지 고민해봐야(홍승용 위원)

#### ▲ 기타

- 뉴스Y 주요 프로그램은 수화방송 및 화면해설 방송을 해주면 청각 시각 장애인에게 유익할 것(이석구 위원)
- 타 언론사가 뉴스 헤드라인을 스마트 폰으로 전송하고 있는데, 뉴스Y도 오전과 오후 헤드라인을 SNS 방식 전송하는 서비스 검토해야(홍승용 위원) (끝).